

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(09.20) 2008.09.21 (이동경축)

시편 126(125), 1-2나. 2나-3. 4-5. 6(© 5)

손상오 신부 작곡

(후렴) 눈 물 로 씨 뿌 리 던 이 - 들 환 호 하 - 며 거 두 리 - 라

1.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되돌리	실 제	우리는 마치	꿈꾸는 이들 같았노	라
2.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	도 다	주님께서 저들에게	큰일을	하셨구 나
3. 주님, 저희의	운명 을	네겔 땅	시냇물처럼	되돌리소 서
4. 뿌릴 씨 들고 울며	가던 이	_____		

그때 우리 입은 웃음	으 로	우리 혀는 환성으로	가득하였노	라
주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	하셨기	에	우리는	기뻐하였노
눈물로 씨뿌리던	이	들	환호하며	거두리이
_____		곡식단 들고	환호하며	돌아오리
_____		_____	_____	_____